

세계 휴대전화 판매, 전년 대비 3.8% 감소

데이터 퀘스트는 2002년 제 1/4분기 세계 휴대전화 엔드·유저용 판매 대수에 관련된 조사 보고서를 통해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비 3.8% 감소한 9376만대였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기 밴더 중 1위는 노키아(34.7%)이며 그 뒤를 모토로라(15.5%), 삼성(9.6%), 시에멘스(8.8%), 소니·에릭슨(6.4%)등이 따라 오고 있다고 밝혔다.

2001년 제 1/4분기부터 선두를 유지한 노키아는 주요 타겟 지역의 수요가 침체했기 때문에 판매 대수에서 전년 동기 3350만 6000대보다 약간 감소해, 성장률은 2.9% 감소한 3253만 1000대이며, 웨어는 전년 동기의 34.4%로부터 조금 증가했다.

2위의 모토로라는 중국 및 CDMA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한 결과 세계 시장에서도 웨어를 확대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데이터퀘스트는 밝혔다.

판매 대수는 1453만 3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9.9%로 나타났다.

삼성은 다수의 지역에서 다른 방식의 단말을 판매해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8.6%의 성장률을 기록해, 3위에 랭크됐다. 2001년 후반부터 성장 기초를 유지하고 있는 지멘스도 전년 동기 대비 24.1%의 증가로 4위가 되었다.

5위에 랭크된 소니·에릭슨은 2001년 제 1/4분기에는 합병 전이기 때문에 수치는 없지만, 작년 4 분기에 있어서의 각각의 판매 대수는, 소니가 190만대, 에릭슨이 640만대로, 합친 웨어는 8.5%였던 계산이 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구 및 남미에서는, 제1/4분기 판매 대수가 작년보다 2년 연속으로 전년 미달이 됐으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퍼시픽 지역에서는, 예상을 웃돌아 전년 동기대비 8%증가의 대수를 기록했다.

서구 시장에서는 휴대전화의 신규 계약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으며, 동 시장에서는 매력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단말 수요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가트너는 이유를 밝혔다.

	2002년 1/4분기		2001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판매대수 (천대)	마켓쉐어(%)	판매대수 (천대)	마켓쉐어(%)	
노키아	32,531	34.7	33,506	34.4	-2.9
모토로라	14,533	15.5	13,225	13.6	9.9
삼성	9,030	9.6	6,076	6.2	48.6
지멘스	8,229	8.8	6,633	6.8	24.1
소니·에릭슨	6,009	6.4	-	-	-
기타	23,423	25.0	37,987	39.0	-38.3
합계	93,755	100.0	97,427	100.0	-3.8

도코모, FOMA 가입자 수 목표는 138만

NTT 도코모는 지난 8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2002년 3월까지의 결산을 발표했다.

2002년 3월 까지의 매상고는, 전년대비 10.4%증가의 5조 1715억엔,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9.0% 증가한 1조 28억엔, 경상이익은 24.2%증가한 8533억엔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동사의 타치카와 케이지 사장은 이 날 회견에서 2001년도를 결산하면서 “FOMA 서비스의 개시, 음성 중심 휴대전화 성장 둔화, ARPU(1명 가입자 월간 평균 수입)가 둔화하는 등 휴대전화 시장이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평가했다.

동사는 음성 ARPU는 2000년도에는 7770엔이었던 것이, 2001년도에는 6940엔에 하강했으며, 제4/4분기는 6430엔에까지 하락한 반면 i모드 ARPU는 2001년도의 880엔에서 2002년도는 1540 엔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편, FOMA 서비스의 3월말까지의 가입자수가 9만명에 머물렀던 것에 대해 “가입자수는 기대보다는 적었지만 법인 유저에 있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개선이나, 기업에서의 새로운 사용법을 제안하고 있는 단계이다. 금년에는 전국 커버율이 90%에 이르러 하반기에는 판매 수량이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3년도째가 되는 내년도에는 많은 판매 수량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2002년도의 FOMA의 계약 수 전망은 138만을, 3년도째에는 600만 가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 독일에서 3월 16일, 네델란드에서 4월 18일에 개시한 i모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지 회사로부터 가입자 수 발표가 없기 때문에 상황은 모르지만, 유럽에서도 i모드는 보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세계 워크스테이션 1/4분기 출하 대수 5.4% 감소

미 가트너 데이터 퀘스트가 6일(미국 시간) 발표한 속보에 의하면, 1/4분기 세계 워크스테이션 출하 대수는 35만 8,829대로, 전년 동기비 5.4%감소세를 보였다.

동사에서는, 미국의 경기회복의 약세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또 미 휴렛 팩커드(HP)와 컴팩 컴퓨터의 합병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일부 유저가 구입을 재고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메이커별로 보면, 출하 대수 1위의 미 델컴퓨터와 4위의 미 IBM은 각각 작년 동기 대비 23.5%, 13.4% 증가하여, 세계 쉐어가 각각 37.5%(전년 동기는 28.8%), 12.9%(동10.8%)로 확대됐다. 한편, 2위의 썬마이크로시스템은 작년 동기 대비 27.4% 감소로, 쉐어가 17.3%(작년 동기 22.5%)로 축소되었다.

3 위의 컴팩은 동기 대비 1% 감소, 쉐어는 13.3%(작년 동기 12.7%)로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5위의 HP가 작년 동기 대비 35.3% 감소, 쉐어 10.2%(작년 동기 14.9%)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각 메이커 모두 작년 4/4분기에 비하면 감소세를 보였다.

데이터 퀘스트는 「미 인텔의 워크스테이션전용 64 비트 프로세서 「아이테니엄(Itanium)」이 진행 방향이 확정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장래의 불투명함이 IT투자를 신중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세계 모바일 유저수 2004년 초 14억 3000만 예상

영국의 리서치회사인 Ovum사는 모바일 시장에 관한 2개의 조사보고서 「세계의 IP와 브로드 밴드 시장 예측」 및 「세계의 무선 시장 예측」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모바일 유저수는, 2002년 전반의 9억 7600만에서 2004년전반에 14억 3000만에, 2007년전반에는 18억 7800만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선 게임에서는 세계 전체의 수익은 지난해 1억 2,400만 달러에서 2006년에는 4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가장 활기가 있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며, 그 중 NTT 도코모의 i-Mode 서비스가 대성공하고 있는 일본이 강세이나, 서구도 2006년까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규모에 필적할 정도로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오퍼레이터들이 모바일 미디어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폴로 개시하는 것은 200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5년 말까지는 3G의 커버 범위는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에 대한 스트리밍이 되어, 3G 망의 보급은 오퍼레이터나 벤더의 예정시기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Ovum사의 예측에 의하면, 2006년까지 소비자 포털 시장에서는 멀티 액세스가 디폴트 되어 투자액도 커져 갈 전망이다. 브라우저를 이용한 와이어리스 인터넷의 세계 전체 수익은, 지난해 318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287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이 숫자는 무선 브라우저 서비스 유저의 음성 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까지 75% 정도로 전망된다고 밝히는 한편 이 조사보고서의 예측 대상 기간내내 매년, 최종 사용자의 트래픽은 55%~70%의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간이 갈수록 그 페이스는 다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 ASP 서비스와 웹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의 원서는, 글로벌 인포메이션의 Web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